

#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3월이 돌아왔지만 이곳은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올해는 겨울 축제들도 코로나 이전처럼 성대하게 개최되어, 전부 돌아보려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리쿠베츠초(陸別町)에서 매년 2월 초에 열리는 '인간 내한 테스트' (이글루에서 하룻밤 동안 추위를 버티는 대회)에 참가하려 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사회 문제가 심화된다면 앞으로는 지역 축제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본격 체험! 새해 맞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 소설을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급문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원작 소설의 제목이 '한 그릇의 메밀국수(一杯のかけそば)'였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보면, 엄마와 아들들이 '추운 겨울이라 따뜻한 우동을 먹은 것이겠구나' 싶지만, 본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면발이 잘 끊어지는 메밀 국수를 먹으며 지난해의 액운을 끊어내고, 길다란 국수 면발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일본의 풍습이 나타나 있는 소설이었던 것입니다. 실존하지는 않지만, 삿포로 시내의 '북해정(北海亭)'이라는 국숫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삿포로 주민으로써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설 명절은 시기(한국은 음력설)적으로도 지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며 흰 떡이 들어간 요리를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신년 '떡 문화'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사스러운 자리에는 떡이 있습니다. 새해에 떡메치기를 하거나, 아이의 백일 잔치를 앞두고 떡을 준비하는 것은 공통적인 문화인 듯합니다. 저도 이번 1월 1일에는 신년 이벤트가 열리는 곳을 방문하여 인생 처음으로 떡메치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왔을 때나 가게를 개업할 때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풍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는 신축 단독주택의 상량식을 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 동네 주민들에게 떡을 던져서 뿌린다고 합니다. '집 지붕 위에서 물건을 던진다니!'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에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일본에서 떡은 새해 장식으로도 사용됩니다. 둥글넓적한 떡 두 개를 겹쳐 쌓고 맨 위에 굴을 올린 '카가미모치(鏡餅)'는 신에게 바치는 공물이자, 신이 내려와 깃드는 곳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는 먹을 수 있는 카가미모치를 비롯하여, 이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 소품 등 새해 맞이기를 위한 가지각색의 상품들이 줄지어 등장하기 시작하며, 연말에 접어들면 홋카이도청 1층 로비에도 커다란 떡 장식이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카가미모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1월 11일이 되면 굳어서 금이 간 떡을 나무 망치 등으로 깬 후, 물에 불려 조리해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구운 떡을 넣어 끓인 '오조니(お雑煮)'라는 국물 요리를 먹습니다. 연말연시 연휴 동안 오조니를 먹어볼 수 있는 가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떡은 쫄깃쫄깃하여 씹는 맛이 있는 반면, 일본에서 주로 먹는 구운 떡은 겉이 딱딱해도 속은 부드러운 치즈처럼 늘어나 달라붙기 때문에 먹을 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으로 인한 질식 사고 대처법이 방송 등에서 소개되곤 합니다. 일본에서도 새해에 떡을 먹는 풍습이 있어서인지 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식사의 40%가 1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유빙을 보러 떠나보자!

이번 겨울에는 도내에서 유빙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러시아의 아무르강에서 홋카이도 북동쪽의 오호츠크해로 떠내려온 유빙들이 바다를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룹니다. 이러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기는 대개 1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로,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유빙을 보기 위해 오호츠크해 연안 지역들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삿포로에서 약 270km(서울-광주간 거리) 떨어져 있는 몬베츠(紋別)였습니다. 삿포로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당일치기 버스투어에 참가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하루의 절반 이상을 버스 안에서 보냈습니다.

몬베츠에서는 홋카이도 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쇠빙선 '가린코호II'를 타고 멋진 대자연을 느껴보았습니다. 유빙이 가까이에서 넘실거리는 모습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와 참수리가 방파제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유빙을 구경하고 다시 삿포로로 돌아오는 시간 동안 홋카이도가 무척이나 넓은 지역임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유산 '가린코호II'



▲유빙으로 뒤덮인 오호츠크해



▲가까이에서 본 유빙의 모습

두 번째 여행지는 홋카이도 내의 대표적인 겨울철 관광지인 손꼽히는 아바시리(網走)입니다. 십여 년 전 한국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오호츠크해 특집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당시 출연자들은 빙어를 잡아 먹고, 유빙 위를 징검다리처럼 건너다니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 가이드 동행 없이 유빙 위에 올라타면 사고가 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아르미 국제교류원과 함께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오카다마 공항에서 메만베츠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서 곧바로 '아바시리 유빙 유람 전세기'에 탑승하여 약 50분간 상공에서 유빙을 감상하는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삿포로를 떠난지 불과 두 시간 만에 유빙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탑승 전 기념사진 촬영



▲하늘에서 내려다본 유빙



▲큐짱과 함께 떠나보세요

드넓은 오호츠크해는 흰 퍼즐 조각을 쏟아놓은 것처럼 유빙으로 덮여있어 신비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눈이 살포시 덮인 시레토코 산맥까지 한눈에 들어와 아름답고도 고요한 홋카이도의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낮은 고도에서 상공을 맴도는 유람 비행이 진행되어 바다를 꽤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르미 국제교류원은 범고래가 수면 위로 물을 뿜는 순간을 목격하거나, 빙어낚시 텐트가 줄지어 있는 아바시리호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광 콘텐츠는 향후 겨울철 한정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시 유빙의 계절이 돌아오면 여러분도 하늘에서 오호츠크해의 유빙을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5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홋카이도의 면적은 한국 국토 면적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넓어, 도내에만 무려 14개의 지역 공항이 있습니다. 하코다테, 구시로, 아바시리 등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단거리 노선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강좌 실시



홋카이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한국문화강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의 강좌는 한국의 겨울철 김장 문화를 소개하는 '김치 강좌', 한국의 생활 관습 등을 퀴즈를 통해 배워보는 '한국 토막상식 퀴즈', 지방 각지의 관광 명소들과 향토 요리 등을 소개하는 '한국 지방 여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 입시제도와 야간자율학습, 수학여행, 결혼 문화, 미신과 풍습 등 수강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양국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장 음식으로 콩나물이 들어가거나 얼큰한 국물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재첩 된장국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홋카이도에서 즐기는 겨울 스포츠 (시즌2)

홋카이도 생활의 묘미라 하면, 겨울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중 하나인 '루지'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활주를 하여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스킨레이나 봅슬레이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년 기사(2023년 4월호)를 통해 소개해 드린 스킨레이와 마찬가지로, 루지 또한 삿포로시에 위치한 후지노 루지 경기장에서 체험회와 각종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루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체험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활주 경험자에 한해 대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루지는 썰매 위에 누운 자세에서 '쿠펜'이라 불리는 썰매의 양날 끝부분을 다리 사이에 끼고 적절히 힘을 가해 방향을 조종합니다. 출발 시에 썰매를 힘차게 밀며 재빠르게 탑승하는 스킨레이와는 달리, 루지는 썰매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대에 설치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썰매를 앞뒤로 움직이며 반동을 주어 출발합니다. 주행 시에는 다리에 미세하게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섬세함이 요구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면에 얼굴이 부딪힐 것 같은 스킨레이보다 트랙을 질주하는 공포감 자체는 덜했지만, 누워서 고개를 살짝 든 자세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기세를 몰아 올해는 삿포로 시민 스포츠 대회 루지 경기와 홋카이도 루지 선수권 대회 등에 출전했습니다. TV 중계 화면으로만 접하던 윈터 스포츠의 매력을 여러분도 삿포로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준비를 하는 모습



▲운 좋게 입상했습니다!

## 맺음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달 말로 퇴사를 하게 되어 제가 발행하는 아카렌가 통신은 이번호가 마지막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양국 관계자들의 노력과, 제가 경험하고 느낀 홋카이도의 다채로운 매력이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카렌가 통신이 정기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취재를 기획하고, 직접 체험한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저에게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며 홋카이도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고, 여러분께 많은 피드백을 받은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새로 부임하는 한국 국제교류원이 '신선한 관점'으로 써 내려가게 될 아카렌가 통신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